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의 아픔에 공감하다



경기도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해 이주배경 주민의 정신건강 회복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젝트 '온(溫)마음 다(多)해'를 시작했다. 사진은 김민정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관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사업 담당자들.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자리 잡은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일대는 다세대 주택이 뽐뽐하게 밀집해 있어 저소득층과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고, 복지 수요 역시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안산 관내에서도 외국인 인구 비중이 16%를 넘어서는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이기도 하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한발 앞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 왔다. 이은주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현장에서 먼저 필요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복지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고립가구, 중장년 1인 가구, 경계선지능, 다문화가정 등 당시에는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았던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사업을 하나’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곧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우리 사업이 주목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산시 전체 사

업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가능성을 실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답을 찾아온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 2025년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해 이주배경 주민의 정신건강 회복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젝트 ‘온(溫)마음 다(多)해’를 시작했다.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다

정신건강 관련 사업은 처음이었기에 초창기에는 실무자들은 물론 유관기관 모두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20여 년간 다져온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홍보에 나섰다.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30여 곳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거듭했고, 그 결과 17개 기관과 공동협약을 맺으며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온(溫)마음 다(多)해’ 2026년 제1차 네트워크 회의 모습.

‘마음회복 프로젝트’를 열어 고려인 청소년, 러시아계 결혼이주여성, 중국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선배 이주민들을 ‘온 브릿지 파트너’라는 주민 리더 멘토로 양성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속 가능한 지지 기반을 다졌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주민을 찾아나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나서자 드러나지 않던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자 문제나 건강보험 미적용 등으로 인해 공공 의료지원 체계에서 소외된 이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전문 기관조차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품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례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모여들었다. 실무자들은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상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젊은 여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상자는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던 중 고향에 전쟁이 터졌고, 큰 충격을 받은 대상자는 돌발행동을 일으키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민 끝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귀국 항공권 비용 지원이 가능할지 문의했다.

“사실 우리 사업의 취지는 이주배경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귀국을 지원하는게 맞을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정해 귀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귀국한 대상자는 현재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김선주 사회복지사는 “아산재단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소신껏 추진하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 다문화 정신건강센터를 꿈꾸며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1년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미술·연극 치료 등 전문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고, 먼저 거주하던 주민과 이주배경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산시에 전국 최초의 ‘다문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회통합 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뿌린 상생의 씨앗이 든든한 복지 안전망이라는 울창한 숲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  글 편집부



정서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주배경 주민들.